

## 우리 인문학과 번역\*

朴 相 益\*\*

- I. 머리말
- II. 번역의 역사적 의의
- III. 번역의 실제

- IV. 번역자의 대우
- V. 맺음말

### I. 머리말

학생 시절 고전독서 모임에서 단테의 《신곡》을 함께 읽은 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어를 몰라서 영역본 몇 종류와 우리말 번역본을 함께 읽었다. 필자가 읽던 우리말 《신곡》은 이탈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의 어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분이 번역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역본과 우리말 번역을 대조하며 읽으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무수히 눈에 띄는 오역들 때문에 도저히 내용 파악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같은 무렵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택한 방법 중 하나는 영문 원서를 우리말 번역서와 비교해가며 읽는 것이었다. 종로 2가의 한 서점에서 영국 작가 H. G. 웰즈가 쓴 역사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마침 이 책이 당시 어느 명문 대학에서 강의하시던 저명 언론인에 의해 번역된 것을 알고 번역서도 구입했다. 그러나

\* 본고는 2002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우석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해 읽으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일개 대학생이 더듬더듬 사전을 찾아가며 읽는 중에도 술한 오역과 비문(非文)들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최근의 경험도 하나 털어놓아야 하겠다. 몇 해 전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번역본으로 한 권 구입했다. 평소 읽고 싶던 책이었고, 무엇보다도 번역자가 학술원 회장까지 지낸 명망 높은 원로 경제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부분을 몇 장 들춰보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말 문장이 어찌나 난해한지(!) 필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읽어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명 학자들의 실망스러운 번역서들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수 본인이 불성실하게 번역한 경우인데, 명색 교수라면서 일개 대학생에게 책잡힐 정도로 부실한 번역을 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대학원생들에게 적당히 나눠 번역을 맡긴 다음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 경우인데, 이것은 도덕 불감증 차원을 넘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다. 조악한 상품에 그럴듯한 가짜 상표를 붙여 종종 말썽을 일으키는 이태원의 가짜 외제상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 학계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양서(良書)들을 반듯하게 번역하여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존경할만한 원로들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젊은 인문학자들 사이에서 번역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양 명저번역 지원사업’이 차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매주 중앙 일간지의 북 섹션에 실리는 수많은 번역서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뿌듯함을 느낄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견 화려해 보이는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갈 길은 아득하게 멀기만 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글은 이러한 불만과 문제의식 위에서, 번역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지, 번역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것이 '우리' 인문학과 역사학의 대중화와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주간동아》 제 279호 기획 특집에 실렸던 〈번역 경시는 지식인의 번역〉을 대폭 수정·확대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sup>1)</sup>

## II. 번역의 역사적 의의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어느 목회자로부터 일본의 번역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목회자는 1992년에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성서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도무지 감피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학기말에 엄청난 과제물로 허덕이는데, 같이 공부하던 일본 친구가 도서관에서 뒤적이던 책을 보니 모두 일본어로 된 책이더라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된 성서고고학 분야의 주된 텍스트들이 그 당시 일본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학 도서관에까지 비치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물론 그 친구는 이스라엘에 오기 이전에 벌써 성서고고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 알다시피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런 전문적인 성서고고학 분야의 책들뿐만 아니라, 고대어에 대한 주된 텍스트들이 이미 모두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얼마 전 번역 출간된 《번역과 일본의 근대》를 보면,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는데 번역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에 메이지 유신(明治維新)과 더불어 정부 내에 번역국(翻譯局)을 두고 조직적으로 서양 서적들의 번역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메이지

1) 박상익, 〈번역 경시는 지식인의 번역〉, 《주간동아》 제279호(2001년 4월 12일자), pp. 66~67. 《주간동아》 편집자는 필자에게 각별히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 내어 써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그러한 논조는 이 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초기에 이미 서양 고전들이 대거 번역되었다. 1881년에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이, 1883년에 흄스의 《리바이어던》과 몽테스키외의 《로마인 성쇠 원인론》이 번역되었다. 이 무렵 일본은 그야말로 번역의 홍수에 빠져 있었다. 오죽하면 《역서독법(譯書讀法)》이라 하여, 엄청나게 쏟아지는 번역서들을 안내하는 책자가 따로 나올 정도였다. 《역서독법》의 저자 야노 후미노는 이 책 서두에서, “최근 번역서 출간이 성황을 이루어 그 권수가 ‘몇 만 권’을 헤아린다”고 밝히고 있다.<sup>2)</sup> 《역서독법》이 출간된 해가 1883년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일이다.

특히 1927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이와나미 문고(岩波文庫)는 일본의 번역 문화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필자는 지난 1999년에 《언론자유와 경전 아래 오파기티카》(소나무)를 출간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시인 존 밀턴이 쓴, 언론사상사의 고전 《아레오파기티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번역·주석·연구서이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문헌은 벌써 1953년에 이와나미 문고에서 번역본이 나와 있었다.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반세기 가량 벌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격차가 반세기뿐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앞서 《역서독법》에서 언급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과 몽테스키외의 《로마인 성쇠 원인론》은 아직도 번역되지 않았고, 흄스의 《리바이어던》은 서울의 어느 명문대 정치학과 교수가 번역한 수준 미달의 번역서가 한 권 나와 있을 뿐이다. 격차가 1백 년 이상인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 이미 19세기에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을, 우리는 지금도, 그 필요성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한글로 된 플라톤 전집, 아리스토텔레스 전집도 없고,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간신히 일본어 중역본(重譯本)

2)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지음,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이산, 2000), p. 59. 《역서독법》의 표현은 얼마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번역과 일본의 근대》 본문에서 마루야마가 밝혔듯이 ‘몇 만권’이 아니라 ‘몇 천권’이라 해도 그 숫자는 충분히 대단한 것이다.

이 한 권 있을 뿐이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랑케는 혼한 선집 하나 없다. 하긴 5백년 유교 국가였으면서도 반듯한 우리말 사서삼경도 갖지 못한 궁색한 처지인 바에야 서양 고전에 대해서는 달리 더 할 말도 없을 것이다.

번역이 전제되지 않는 지적 활동이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동양철학자 김용옥의 말처럼 제아무리 훌륭한 논문을 써도 그 논문에 관련된 고전의 번역이 없이는 그 논문이 전개한 아이디어는 '우리 문화'의 일부로 편입될 수 없다. 제아무리 영어 도사들이 많이 출현해도 그들이 '우리말'로 그들의 학식을 표현할 수 없는 한 그들은 '우리 문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sup>3)</sup> 외래 문명의 새로운 개념들은 우리말로 번역이 될 경우 우리의 어휘와 개념을 풍부하게 만들면서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에도 중기 이래의 란가쿠(蘭學)와 메이지 시대 이후의 번역 열풍은 한문 문명권과 그리스·로마 문명권을 융화시키며 동서 문화교섭사의 가장 빛나는 장면을 연출했다.<sup>4)</sup>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상당수와 학문적으로 쓰는 대부분의 전문 용어, 즉 자유(自由), 평등(平等), 권리(權利), 인권(人權), 정의(正義), 민주주의(民主主義), 시간(時間), 공간(空間), 의무(義務), 책임(責任), 도덕(道德), 원리(原理), 철학(哲學), 사회학(社會學), 미학(美學) 등은 모두 일본 지식인들이 서양 문화를 수용하면서 번역해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들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번역 작업을 통해 서양 문화를 수용하고자 했던 일본 지식인들에게 너무나 큰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근대 일본만이 아니다. 역사상 어느 문명이든 다른 문명과 처음 접촉할 때 가장 먼저 수행되는 작업은 바로 번역이다. 예컨대 서양 세계는 중국과 접촉을 시작했을 때, 중국 고전을 서양어로 번역하는 일부터 착수했다. 영국인 제임스 레그(James Legge)는 이미 19세기에 중국 고전 상당수를 영역하여 정본화 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중국 연구는 레그의 번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3)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민음사, 1984), pp. 34~36.

4) 고종석, 《감염된 언어》(개마고원, 1999), p. 92.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중세 유럽을 둘러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중세전성기 유럽의 사상적·학문적 발달은 번역 작업 없이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고전 저작들은 12세기에 라틴어로 처음 번역되어 서유럽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번역 작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저작이 서양 사상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내용과 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 교리 체계에 융합시키려는 시도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 서방에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은 보에티우스가 번역한 초보적인 논리학 논문 몇 편뿐이었다. 물론 비잔티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어 사본들이 남아 있었으나 그것들은 비잔티움에서 어떠한 독창적인 철학적 사고의 전통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는 사정이 달랐다. 아랍인들이 정복한 헬레니즘 문명 지역에는 그리스 철학의 여러 학파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아랍인들은 그 학파들의 사상을 습득하여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다. 750년에서 900년 사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작이 일부는 그리스어에서 직접, 일부는 시리아어판(版)을 통해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아랍인들은 이것을 이슬람교 교리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슬람 철학자들을 그리스어의 필로소포스(philosophos)를 음역하여 아랍어로 파일라수프(faylasuf)라고 부른 데서도 볼 수 있듯이,<sup>5)</sup> 그리스어로 된 철학 저술의 아랍어 번역은 이슬람 사상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 철학의 모든 유산은 이슬람 세계와 접촉한 서유럽 기독교 사상가들에 의해 부활되었다. 기독교 사상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비잔티움이 아니라 아랍으로부터였으며, 이는 아마도 아랍인들에게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생생한 전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12세기에 이루어진 아리스토텔레스 번역 작업은 거의 모두가 기독교도와

5) 김정위, 《이슬람사상사》(민음사, 1991), p. 105.

이슬람교도가 이웃하여 함께 살고 있던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시칠리아에서도 얼마간 번역이 이루어졌지만, 가장 큰 번역 중심지는 에스파냐의 톨레도였다. 그러나 이렇듯 그리스어 원본이 그리스어에서 시리아어로, 시리아어에서 아랍어로, 다시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중역(重譯)되는 바람에 수많은 오역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은 13세기 중반 뫼어베크의 윌리엄(William of Moerbeke)이 그리스어 원본을 토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저작들을 직접 번역함으로써 극복되었다.<sup>6)</sup>

기원전 5, 6세기에 활짝 피어난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이 그리스의 쇠퇴와 함께 로마에 수용될 때, 로마 지식층은 그리스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따라서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은 서유럽 라틴 문명에 곧바로 계승되지 못했다. 한편 아랍 세계는 8, 9세기에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일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신들의 과학 및 철학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아랍을 통한 서유럽 라틴 문명으로서의 그리스 사상의 재수입은 아랍어로 번역되었던 그리스 고전을 중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유럽 중세사의 이른바 ‘12세기의 르네상스’(12th Century Renaissance)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가 ‘번역의 시대’(Age of Translation)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지적 번영이 번역에 의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 Ⅲ. 번역의 실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운 직업인가. 봄이 오고 마음이 들뜨면 나는 사전과 원고지 한 뭉치를 조그만 자루에 싸들고 전국 각지를 여행하고는 했다. 낮에는 꽃구경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이면 민박을 들어 일을 했다.…… 이렇듯 이 세상에 가보고 싶은 곳 아무 데나 찾아서 유럽을 다니며 일하는 직업이 또 어디

6) Brian Tierney and Sidney Painter, *Western Europe in the Middle Ages: 300-1475*, 이연규 옮김, 《서양중세사》(집문당, 1986), p. 420.

있을까?”<sup>7)</sup>

번역문화가 안정효의 말이다. 사전 한 권 들고 주유천하(周遊天下) 하면서 번역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안정효는 높은 평판을 얻고 있는 유능한 번역가인데다, 그가 주로 번역하는 소설 문학은 일상 어 위주의 서술이므로 사전 한 권만으로도 번역 작업이 수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번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역사서의 경우 번역가 한 개인이 포괄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용어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정확을 기해야만 한다. 일단 번역 작업에 들어가면, (영문의 경우) 좋은 역어를 찾기 위해 각종 영어 사전을 여러 권 구비해야 하고, 그밖에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사전, 그리고 웹스터 인명사전과 지명사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도 동원된다.

번역 작업의 실상을 좀더 생생하게 알아보기 위해 얼마 전 어느 중견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받은 메일 하나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출판사에 근무하는 편집자 Y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주간동아》에 기고하신 번역 관련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너무 잘 써주셨습니다. 저는 출판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번역서를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출판 일을 시작하고 보니 아, 번역서가 어려운 건 순전히 번역 문제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출판사도 내는 책 가운데 80% 정도가 번역서입니다. 교수들은 대학원생을 시켜서 싸구려 번역을 해오고 편집자는 미친 듯이 밤을 새워가며 그걸 거의 100% 다시 번역(윤문이 아니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의미가 쉽고 선명하게 다시 드러난 번역문을 보며 흐린 유리창을 깨끗이 닦은 것처럼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과연 편집자의 몫인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교수'라는 사람들은 대학생들과 편집자의 피땀을 가로채서 번역료를 챙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집자와

7) 안정효, 《번역의 테크닉》(현암사, 1996), p. 13.



출판사들의 '격렬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번역하신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편집자가 고생해서 깨끗하게 고쳤겠지'라는 그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준 편집자는 필자와는 일면식도 없다. 《주간동아》에 실린 필자의 글을 읽고 메일을 보내온 것이다. 사적인 메일이어서 그랬겠지만 심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신랄한 공격을 퍼붓기로는 안정효도 뒤지지 않는다. 안정효는 스스로 번역하지 않고 조교에게 대신 시킨 원고를 출판하는 행위에 대해 대학 교수라는 신분과 명성에 의지한 '매춘 행위'라고 꼬집는다. 우리 번역 문학의 위상을 실추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분들이 바로 이런 '매춘 교수'들이었다는 것이다.<sup>8)</sup> 모욕적인 언사임에 분명하지만 그것이 학계 일각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앞의 편집자의 글에서도 나왔듯이, 번역자는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른 분야들도 그렇겠지만, 역사서의 경우는 문학·종교·건축·음악·경제·미술 등 다루는 주제가 워낙 다양해서, 우리말 어휘력과 표현력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출판사의 편집자와 긴밀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 번역자 선에서 일단 번역이 완료되면, 전문 편집자의 교열을 거친 다음, 역자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편집자가 재검토를 해서 인쇄에 넘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도 번역자와 편집자 사이에는 수많은 대화가 오간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 번역 문장의 완성도가 그래도 한결 높아진다. 물론 출판사로서는 인력과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된다. 하지만 쓸건 쓰고 들일 것은 들어서 정성을 쏟으면, 번역 문제로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당연한 일이지만, 번역자와 편집자에게는 각기 고유 영역이 있다. 번역자에게는 일차적으로 '정확한' 번역을 할 의무가 따른다. 역사가 액튼 경이 말했듯

8) 같은 책, p. 15.

이 '정확성은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다. 반면, 편집자에게는 넘겨진 번역 원고를 '다듬는' 임무만을 맡겨야 한다. 정확성의 의무까지 편집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일이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란 우스개 소리가 있다. 아무리 꾸미고 성형(成形)을 해 봐도 박색(薄色)은 여전히 박색으로 남는다는 말이다. 이 법칙은 번역 원고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즉, 애당초 정확하게 번역되지 못한 글은, 편집자가 아무리 뜯어고치고 윤문을 해도 독자들에게 제대로 의미 전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굴지의 H출판사에서 나온, 독일어 전기물 시리즈 번역이 생각난다. 평소 전기 문학에 관심이 있던 필자는 이 시리즈에서 10여권을 골라 한꺼번에 구입했다가, 몇 권을 골라 앞부분을 읽어본 후 실망한 나머지 모조리 반쯤해버리고 만 경험이다. 편집자가 윤문에 꽤 공을 들였는지 문장은 아주 매끈매끈하게 다듬어졌는데 도무지 내용 파악이 되질 않는 것이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 시리즈 중 하나인 《비스마르크》를 들 수 있다. 비스마르크 평전을 번역하려면 19세기 독일사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쌓은 사람이 말아야 할 것이건만, 이 경우는 독문학 전공자가 어학 실력만 믿고 번역에 뛰어들 것이 분명해 보였다. 번역자 자신도 의미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인 번역을 하여 편집자에게 원고를 던져 놓았으니, 제아무리 날고 기는 편집자가 윤문을 해 봐도 독자로서는 내용 파악이 되질 않는 것이다. 한국어가 영어, 독일어보다 훨씬 난해해지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이다.

번역을 하는 데는 '외국어 실력',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우리말 구사 능력'이 각각 30%, 30%, 40% 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견해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말 표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번역가들이 동의할 것이다.<sup>9)</sup>

9) 안정효도 원문의 이해보다 파악한 내용을 독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힌다. 같은 책, p. 24.

먼저 해당 외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번역에 필요한 외국어는 거의 전적으로 '독해력'이다. 영어로 된 책이라고 해서 영어만 할 줄 알아서도 안 된다. 인문서적의 경우 영어로 쓰인 책이라도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수많은 외래어와 외국어가 영역되지 않은 채로 섞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해당 언어들에 대한 약간의 소양과 더불어 좋은 사전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다. 예를 들어 전공이 서양사라 하더라도 서양사 아무 분야나 다 번역할 수는 없다.<sup>10)</sup> 자신이 각별한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텍스트를 골라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번역을 하려면 자신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분야를 정해서,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 각종 참고 자료도 다량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번역을 하다보면 원문 자체가 불투명해서 관련 자료를 섭렵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연후에야 번역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영어의 'aunt'는 우리말로 '아줌마'라고 막연히 번역할 수 있지만, 그밖에 '이모', '고모', '숙모', '백모' 등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 영문 원서에 'aunt'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 그 말이 막연히 '아줌마'란 뜻으로 쓰였다면 그대로 옮기면 된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 중 하나를 지칭하는 말인데(대개 그렇다.), 원문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친족칭호가 분화되어 있지 않아 대개 명시되지 않는다.), 해당 인물에 관련된 자료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이모'인지, '숙모'인지를 밝혀 우리말로 옮겨줘야만 한다. '이모'라고 해

10) 예를 들면 필자가 《서양문명의 역사》(소나무, 1994) 제2권을 번역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야 할 것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표기한 것도 비잔티움 역사와 언어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생긴 오류이다. (사실 이런 점은 개설서를 번역 또는 저술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이라 하겠다.) 이 부분은 개정 번역을 할 때 바로잡도록 하겠다. Georg Ostrogorsky, *Byzantinische Geschichte: 324-1453*, 한정숙·김경연 옮김 《비잔티움 제국사: 324-1453》(까치, 1999), p. 8 참조.

야 할 것을 ‘고모’나 ‘아줌마’ 따위로 옮겼다면 명백한 오역이 되기 때문이다.

번역 이론을 하나의 학문으로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나이다(Eugene A. Nida)는 성경 번역의 경우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번역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번역의 언어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 우선한다. 성경은 반드시 비기독교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하면 그것은 저절로 기독교인에게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5세부터 30세 사이의 청년이 사용하는 언어의 채택이 나이 많이 먹은 어른이나 어린아이의 언어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sup>11)</sup> 이 두 가지 원칙은 성경 번역이 아닌 모든 번역 작업에서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청년층의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인문학의 대중화 및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대 사항이기 때문이다.

누누이 밝혔듯이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말 구사 능력이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번역가로 꼽히는 이윤기, 안정효 등이 번역가인 동시에 ‘소설가’이기도 하다는 것은 번역에서 우리말 표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 등에서 논문에 구사된 문장의 미숙이 심심치 않게 지적되고 있는 우리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트리벨리언이 말했듯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역사는 피상적 저작이고 난해한 문체야말로 심오한 사상가와 성실한 저작자임을 말해준다는 사고방식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읽기에 쉬운 것이 쓰기에는 어려운 법이다.<sup>12)</sup>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문장으로써 역사학 대중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아니, 그것은 모국어와 ‘우리’ 인문학에 대한 심각한 모독에 다름 아닐 것이다.

11) Eugene A. Nid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김용옥 옮김 〈번역의 이론과 실제〉 《도올논문집》 (통나무, 1991), pp. 232~234.

12) G. M. Trevelyan, "Clio, A Muse," in Fritz Stern ed., *The Varieties of History: From Voltaire to the Present* (London: Macmillan, 1970), p. 240.

## IV. 번역자의 대우

이따금 번역가를 지망한다는 대학생들로부터 번역가가 되는 길은 무엇이며, 번역가가 되었을 경우 수입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곤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번역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물질적 보상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안정효 같이 “대학교수나 웬만한 회사의 부장급 간부보다도 부지런한 번역가의 수입이 훨씬 더 많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 번역자도 있기는 하다.<sup>13)</sup> 하지만 그것은 마치 월간지를 내듯이 매달 한 권 이상 번역서를 출간하는 몇몇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듯 단기간에 많은 분량의 번역 작업을 할 경우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요즘 대부분의 해외 서적은 번역할 때 저작권료를 켜야 한다. 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정가의 6% 수준이다. 번역자는 정가의 5-6%를 인세로 가져간다. 예를 들어 정가 2만 원짜리 책을 한 권 번역했는데, 초판 2천 권을 찍고 인세가 6%라면 번역자에게는 240만원이 돌아가게 된다. IMF 사태 전까지만 해도 독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적 인문서는 보통 3천 권 정도 찍었지만, 요즘은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많아봤자 2천 권이 고작이다. (학술서는 그보다도 못해서 대개 1천 권 이하이다.) 민주노총이 2001년 현재 ‘한국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며 살기 위한 비용’인 표준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 월 305만 7972원이라고 제시했으니,<sup>14)</sup> 매 달 한 권씩 번역서를 낸다고 해도(!) 표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아직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한 박사급 연구자들에게

13) 안정효, 앞의 책, p. 13.

14) 《동아일보》2001년 1월 31일자 29면.

생계 수단을 겸하여 번역 작업을 해볼 것을 권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시간 강사 수입도 번역료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여건 속에서 교수들이 번역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을 탓할 수만도 없다. 학술진흥재단에서 과제로 선정되면 원고지 150매 내외의 논문 한 편으로도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데, 1년 내내 매달려야 겨우 한두 권 낼 수 있는 번역 일에 누구들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게다가 대부분의 국내 대학에서 번역은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딱한 현실이다. 학술진흥재단의 동서양 명저번역 지원사업도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원 규모로는 실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번역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미국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보다. 코프먼은 《인문학의 미래》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번역자들은 부당하게 낮은 번역료를 받으며 서평의 경우 그들은 저자와 출판사 이름이 제목 및 책값과 더불어 소개되는 첫머리에조차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번역자들은 무명의 글쟁이 정도로 여겨진다.”<sup>15)</sup>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일간지의 서평 섹션에서 번역서를 다룰 때 굳이 번역자를 거명하며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번역은 논문을 쓰는 일에 비해 훨씬

15) Walter Kaufmann,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Teaching Art, Religion, Philosophy, Literature and Histor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5), p. 102. 이 책은 학술진흥재단 번역총서의 하나로 한국교원대학교의 이남재·이홍수 교수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되었으나(미리내 출판사, 1998)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오류와 낯 뜨거운 비문으로 가득 차 있다. 코프먼은 이 책에서 중요한 고전의 영역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올바른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을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두 교수 모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코프먼이 질타한 미국 인문학의 현실이 사실임을 반증해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우리 인문학의 초라한 현실도 함께 드러내주고 있다.

쉽거나 저렴한 종류의 일로 바라보는 세간의 풍조가 신문 지면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한 논문을 산출하는 우수한 학자들이 이따금씩 선보이는 수준 미달의 번역물들은, 번역이 논문 못지 않게 꽤나 어려운 일에 속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마다 3월이 되면 대학 신입생이 읽어야 할 '고전 목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 그러나 의문이 생긴다. '고전 목록'에 오른 책들이 우리말로 번역은 다 되어 있는지? 번역은 믿을만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추천한 교수들 자신은 읽거나 하고 추천을 하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고전을 읽으려면 모름지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을 익혀 직접 원서로 읽으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에 젖은 지식인의 낯 뜨거운 위선이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얼마나 느려질 것이며, 내용 파악은 얼마나 부진하겠는가? 잘 된 번역을 읽는 것보다 능률이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번역은 궁극적으로 정보의 대중화,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열악한 조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작업을 경시한다는 것은 '지식인의 번역'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근자에 '인문학의 위기'란 말이 널리 거론되고 있지만, 필자로서는 이 말을 쓰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다. '위기'란 한창 잘 나가다가 추락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 인문학은 지적 인프라 구축이란 점에서 해방 이후 한번도 잘 나가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떡잎 단계부터 영양실조 상태로 비틀거리며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번역 작업을 통해 텍스트를 제대로 축적하지 못한 우리 인문학의 어두운 공백은 오랜 동안 후학들에게 부담스런 짐이 될 것이다. 번역을 통한 지적 자원 확충 문제는 이제 21세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독일 문호 괴테는 어느 날 자택을 방문한 한 영국인에게 독일어의 탁월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귀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독일어를 배우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 독일 문학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잘 배워 두면 다른 많은 언어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기 때문이요, 물론 프랑스어만은 예외이긴 하지요, 프랑스어는 사교 언어여서 특히 여행 때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일거요, 프랑스어는 누구나 알고 있어서 어느 나라를 가든 뛰어난 통역관의 도움 없이도 프랑스어만으로 불일을 볼 수 있으니깐 말이요.

하지만 그리스어와 라틴어, 이탈리아어와 에스파냐어 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 민족의 대표작들은 매끄러운 독일어 번역본으로 읽을 수 있지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목적이 아닌 한 그들 언어를 힘들게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돌릴 이유가 없지요. 외국의 모든 것을 나름대로의 특색대로 평가하여 이질적인 특성에 순응하는 것이 독일인의 천성이요, 이러한 사실에 더해 또 독일어는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독일어 번역본은 철저히 원작에 충실해서 완전한 작품이 되는 거라고.

또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좋은 번역본이 있으면 대단히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이요, 프리드리히 대왕은 라틴어를 하지 못했소. 하지만 프랑스어 번역본으로 키케로를 읽었는데, 우리들이 원어로 읽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었소.”<sup>16)</sup>

독일어의 지적 인프라와 부가가치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19세기의 문호 괴테를 보면서, 우리는 21세기 한국어의 위상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텍스트 없는 사회’인 우리의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 할 정도로 척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러 못한 조상을 닮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역사

16) Johann Peter Eckermann, *Gesprache mit Goethe*, 박영구 옮김, 《괴테와의 대화》 (푸른숲, 2000), pp. 162~163.



의 수레바퀴는 돌아갔다. 공은 우리에게 넘겨졌다.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조상으로 평가받을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번역을 통한 인문학 텍스트 구축 작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신적·물질적 보상 체계는 한심할 정도로 미약하다. 그렇다고 이 글에서 제기한 어쭙잖은 문제 제기로 보수적인 정부와 학계의 공고한 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이 일에 도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모국어와 '우리' 인문학에 대한 긍지를 지닌 한국의 지식인이자 21 세기가 끝나기 전에 외국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귀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학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잘 배워두면 다른 많은 언어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기 때문이요, 물론 영어만은 예외이긴 하지요. 영어는 국제 공용어여서 특히 여행 때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일거요. 영어는 누구나 알고 있어서 어느 나라를 가든 뛰어난 통역관의 도움 없이도 영어만으로 불일을 볼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고전 중국어(한문) 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 민족의 대표작은 매끄러운 한국어 번역본으로 읽을 수 있지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목적이 아닌 한 그들 언어를 힘들게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지요. 외국의 모든 것을 나름대로의 특색대로 평가하여 이질적인 특성에 순응하는 것이 한국인의 천성이요, 이러한 사실에 더해 또 한국어는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본은 철저히 원작에 충실해서 완전한 작품이 되는 거라요.

또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좋은 번역본이 있으면 대단히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이요, 김대중 대통령은 고전 중국어를 하지 못했소. 하지만 한국어 번역본으로 《사기(史記)》를 읽었는데, 우리들이 원어로 읽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었소.”